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고양작은도서관	김나현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오전호	블랙파워	나는 자존감을 자아 존중감이라는 사전적 뜻에서 한결을 나아가 '자신감이 없어도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다. '자신감이 없어도'라는 표현을 한 것은 자존감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 유지하고, 되살리는 대상으로 보려는 습관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나락으로 떨어져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존급없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자존감 교육보다 실패해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회라면 자존감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명확한 방법은 우리가 자존감을 잃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거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 웃는고래	여은주	달과6펜스	서머셋 모음	민음사	우린 서로 모르고 있던 행간지만 결국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 열정이 그사람을 이리저리 휘둘고 다녔으니까요 그를 산정한 향수에 사로잡힌 영원한 순례자로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동부지부	웃는책	김지영	내가 알던 사람	샌드 자우하루	글항아리	영혼은 나의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당신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 몸속을 순환하는 피가 아니라 우리가 틀어쥔 공기처럼.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다들람작은도서관	박정자	상자밖에 있는 사람 : 진경	아빈자연구소	위즈덤아카데미	자기기만에서 빠져 상자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상자밖으로 나와야 한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하현숙	민주주의는 어떻게 파괴되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에르로스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상황이 책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적대적으로 갈라서고 등 돌리는 틈으로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프레임	최인철	21세기북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던 프레임을 생각하게 한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인천지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유영란	꼭주는 남성성	권강현영 외	동녘	우리 사회는 분명 남성성의 폭력과 가해, 격노, 괴롭힘을 제어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그런 지점에서 해로운 남성성들이 복주한다고 말할 수있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제주지부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김미영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	다산책방	작은 친절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이처럼 사소한 것들(친절, 배려, 작은선택, 인간다운 행동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린 뭘 할수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호남지부	삼성동어린이도서관	최민정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	박충규	인물과 사상사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많다. 사회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알리고 변화시키려는 행동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우두머이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이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게 되었다. 별 5개를 책에 달아 놓았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슈빌라움작은도서관	정정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하연	책읽는 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슬퍼할 사람들을 위해, 무너질 것 같아..... 난 웃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명덕이음작은도서관	김영란	꽃에 미친 김군	김동성	보림출판사	꽃을 사랑하는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문수산선삼작은도서관	문신임	이어령의 말	이어령	세계사	거시기 머시기 한쪽은 암시하고 다른쪽은 짐작한다 '거시기 와 머시기' 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집단기억에 접속하는 ID이고 비번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작은여우숲도서관	심혜영	아들을 잘 키우는 말은 따	이진혁	웨일북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막연하게 화가나지만, 감정에 메타인지가 생기면 속상하고 답답하더라도 무턱대고 화내는 일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작은여우숲도서관	조지영	알프레드 아틀러	알프레드 아틀러	스타북스	한사람의 과거가 그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